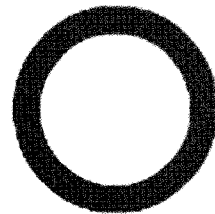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인의 당뇨병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그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당뇨병연맹(IDF)은 매년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정해 모든 국가가 다양한 홍보행사를 진행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날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상징하는 로고 '블루링'을 각 국가의 랜드마크가 되는 탑과 빌딩에 푸른빛 점등식을 거행하는 등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블루링'의 푸른빛은 모든 국가를 통합하는 하늘의 색을 가리키고, 원형은 당뇨인의 결합을 의미해 '푸른 하늘 아래에서 당뇨인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푸른빛 점등식을 실시해, 올해에는 11월 13일(금) 오후 6시에 서울 보신각과 부산 광안대교에서 행사가 치러진다.



world diabetes day

해마다 주요 테마를 정해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관리를 강조하는데, 지난해에는 소아 당뇨병의 위험성을 경각시키는데 이어, 이번 해에는 “당뇨병의 예방과 교육”을 주제로 정해 세계인을 당뇨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지난 30년 동안 제 2형 당뇨병의 급속 증가로 오늘날 전 세계 2억 5000만명이 넘는 당뇨병환자가 발생, 2025년에 가서는 4억만명에 육박할 것을 예상해 국제당뇨병연맹(IDF)에서는 “적절한 관리와 예방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당뇨병의 대란은 각국의 경제발전을 전복 시킬 것이며, 병치레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당뇨병과 합병증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당뇨병연맹(IDF)는 나이, 체중, 유전력, 심혈관질환 경험, 임신 등의 위험요소를 갖춘 당뇨 고위험군은 반드시 각종 혈액검사와 경구당부하검사, 자가 혈당측정 등을 실시하여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과 정부에서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세계 당뇨병의 날 행사안내

▶(사)한국당뇨협회 주최

· '당뇨 바로알기' 전국민 무료 혈당검사 캠페인

일시 : 11월 9일(월)~11일(수) 오전 10시~16시

장소 : 서울역 KTX 열차역 구내 외

일시 : 11월 12일(목)~13일(금) 오전 10시~16시

장소 : 종로 3가 지하철역 구내

문의 : 한국당뇨협회 사무국 02)771-8542~4

▶세브란스병원

일시 : 11월 11일(수) 오전 9시~12시

장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로비

내용 : 무료혈당측정, 간호 및 영양상담

문의 : 02)2228-5456

▶가톨릭대 성모병원

일시 : 11월 10일(화) 오전 9시~12시

장소 : 가톨릭대 부천병원 내 로비

내용 : 무료혈당측정

문의 : 032)340-2025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주간 기념 행사

· 푸른빛 점등식

일시 : 11월 13일(금) 오후 6시

장소 : 서울 보신각, 부산 광안대교

대상 : 당뇨병환자와 가족, 의료진, 일반인

문의 : 대한당뇨병학회 사무국 02)714-9064

▶강북삼성병원

· 당뇨인의 날 행사

일시 : 11월 13일(금) 오전 9시~12시

장소 : 강북삼성병원 로비

내용 : 혈당측정 및 당뇨상담

문의 : 02)2001~1550,1551

· 합병증 건강강좌

일시 : 11월 13일(금) 오후 1시 30분~5시

장소 : 강북삼성병원 신관 15층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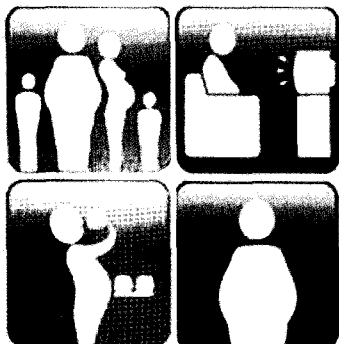
대상 : 당뇨병환자 및 가족 150명

내용 :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 강의, 혈당측정 및 상담

사전 신청 후 참가 가능

문의 : 02)2001~1550,1551



당뇨병의 위험요인

- 비만 및 과체중
- 잘못된 식습관
- 가족력
-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 민족성 (아시아권, 라틴아메리카계, 미국, 캐나다, 호주 토착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 높은 당뇨유병률이 보고되었다)
- 운동부족
- 고령
- 임신성당뇨병력